

전주 숨은보석, 글로벌 스타기업 키운다

전주시, 캡스텍·피치케이블 등 글로벌 스타기업 2곳 추가 지정... 맞춤형 마케팅 지원 나서

전주시가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에서 빛나는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세계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캡스텍과 피치케이블 등 2개 업체를 신규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존 2개 업체를 포함한 총 4개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올해 선정된 캡스텍은 약제를 초미립화해 분사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약제사용량을 최소화해 방제효과를 극대화한 기술로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등에 수출을 진행중인 수출유망기업이다.

또한, 피치케이블은 국내 최초로 탄소발열렌치 특허와 성능인증을 획득, 프랑스의 데크리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유망한 글로벌 성장기업으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성장가능성과 기술력이 높은 기업을 매해 2개 사씩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AIST와 손잡고 미국 등지에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알리는 동시에 다각적 관료를 개척해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사업예산이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

지원했던 업체 중 지속적으로 성과 가능성이 있는 2개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계 콘크리트 펌프시장 업계 1, 2위 업체와 샘플테스트 진행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티엠시는 더 넓은 해외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미국 100대기업과의 미팅 및 샘플테스트를 진행하며 탄소융합마스크필름을 전 세계에 수출중인 이안코리아도 해외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들 4개 기업은 올 연말까지 글로벌 현지마케팅 지원 및 국제인증 추

진 등 미국 현지 비즈니스 마케팅을 지원받으며, 해외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자칫만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독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0배 늘리고,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기(氣) 살리기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등 지원을 받은 업체가 중국 스타벅스에 원료를 수출하고, 다른 업체는 중국 수출을 위한 위생허가 절차만 남겨두는 등 해외시장을 새로 개척한 지역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재용 기자

팔복 새뜰마을 작은 잔치

노후추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팔복동이 마을공동체 발전을 다짐하는 주민들의 흥겨운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전주시는 21일 팔복새뜰마을 덕수경로당 앞에서 박산이 덕진구청장과 전주시의회 송상준 부의장과 송정훈, 김진욱 의원, 마을 주민,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천마을 작은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가 추진 중인 '팔복새뜰마을 조성사업'의 마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이끄는 주민협의 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마솥에 삼계탕을 직접 끓이고 그동안 마을공동체활동에서 함께 재배해온 채소로 밑반찬을 준비해 함께 나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추천마을 주민공동체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공동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만든 허브비누를 200여개를 이웃들에게 선물했으며, 더운 여름 한 마음으로 어우러진 주민들을 위해 시원한 커피를 만들어 시음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전주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그동안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꾸준히 참여해 온 마을 공동체 활동의 꽃을 피우는 화합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선미촌 일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전주시의 프로젝트에 '전주 선미촌'의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선미촌 성매매 여성들, 광장으로 나온 '사연'

전주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프로젝트에 반발 생존권 요구... 가두행진도 벌여

선미촌 일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전주시의 프로젝트에 '전주 선미촌'의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선미촌 업주들과 성매매 여성들은 전주시청 광장에서 21일 상가 상인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150여명 참가한 가운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선미촌 철거 반대 집회를 했다.

이날 집회는 전주시가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으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고 선미촌에서 내보내려 하는 것에 대한 반대집회다.

단상에 올라온 성매매 여성 대표는 "전주시는 선미촌을 문화예술촌으로

위장해 성매매업소를 매입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우리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우리들의 제언이 무시되고 강제적으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전국의 성노동자들과 연대해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선미촌 상인회 대표 이씨는 "전주시와 여성단체들이 여성인권을 빌미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예술인만 사립이고 상가 상인들은 사립으로 보이지 않느냐"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대책 없이 선미촌을 몰아내려만 하지 말고 자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1시간가량 집회를 진행하고 시청에서 오거리광장을 돌아 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앞서 전주시는 선미촌 재생사업을 위해 선미촌 내부에 현장시청을 열어 관련 부서를 파견하고, 예술인들을 모집하는 등 지난해부터 94억원 을 들여 선미촌 일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선미촌 영향으로 낙후되고 공동화된 서노송동 일대 11만㎡에 행복주택도 짓고 각종 갤러리와 공방 등으로 꾸며진 문화예술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돕는다

전주시, 남초등학교 인근 '엘로카펫' 설치

전주시 서서학동 전주남초등학교에 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멀리서도 잘 인식할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엘로카펫'이 설치됐다.

엘로카펫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앞 대기 공간 벽면과 바닥을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등 국제 이동인권센터가 고안한 시설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엘로카펫은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 스티커로 설치되며, 설치작업은 전주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서학동

주민자치위원, 남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가 직접 참여하게 된다.

시는 이날 중 3개소에 대한 엘로카펫 설치를 완료한 후, 현재 공사 진행중인 남초등학교 정문 방향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엘로카펫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장은 "엘로카펫이 어린이에게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운전자는 신호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멀리서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덕진서,아중저수지자살시도 방지머리맞대

전주시와 전주덕진경찰서가 급증하고 있는 아중저수지의 자살시도를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아중저수지는 훌륭한 야경으로 전주시민들에게 휴식의 장소로 선호받고 있다. 그러나 아중저수지는 매년 자살시도가 늘어나며 전주시와 전북경찰에 큰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중저수지에서 일어나는 투신자살 시도는 2015년 7건에서 2016년 9건으로 늘었으며, 7달밖에 지나

지 않은 올해 역시 이미 8건의 자살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난 함현배 덕진경찰서장은 "아중저수지에서 벌어지는 자살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시장 역시 함 서장에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전주보건소에 아중저수지의 자살 시도를 막을 수 있는 테스트포스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근 기자

헤어지려한 여자친구 손목 그은 30대 구속

자신과 헤어지려한 여자친구의 손목을 그어 죽이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지난 20일 오전 3시 30분경 여자친구 B(39)씨

가 자신에게 헤어지라고 하자 폭행하고 과도로 B씨 손목을 그어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래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운,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